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11

가족금융·상속·후견·디지털 유산

가족의 돈과 권한을 투명하게 정하고 사망·질병·판단능력 저하 때 필요한 기록을 준비한다.

교수자용 지도서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교수자 안내

설명보다 학습자의 실제 기록·선택 이유·도움 요청 문장을 확인한다. 피해·채무·질병·가족갈등을 공개하도록 압박하지 않는다.

수업 목표

- 공동생활비와 개인재산의 경계·동의 규칙을 만든다.
- 보증·증여·상속이 서로 다른 법률·세금 문제임을 구분한다.
- 대리·후견·의사결정 지원에서 권한과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 계좌·보험·채무·구독·디지털자산 목록과 접근 원칙을 준비한다.

교과 해설 · 왜 가르치고 왜 이 순서인가

가족의 돈은 믿음만으로 관리하지 않고 권한과 기록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함께 쓰더라도 소유자·계약자·대리인의 권한은 같지 않습니다. 질병·인지저하·사망이 생기면 계좌·채무·구독·디지털 자산을 누가 어떻게 확인할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재산·공동재산·대리·상속·후견의 기초를 먼저 익힌 뒤 가족합의와 사후정리 사례를 다룹니다.

이 수업이 보호하려는 생활영역

- 가족 구성원의 재산과 의사
- 공동생활비의 투명성
- 상속채무 판단 시간
- 인지저하 시 적절한 대리
- 계정·구독·디지털 자산

개념의 선후관계

순서	개념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는 이유
1	재산의 경계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2	대리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3	후견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4	상속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5	디지털 유산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교수자가 지킬 설명 원칙

- 가족 신뢰와 법적 권한을 구분하되 가족을 불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 고령·장애를 의사결정능력 상실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 상속은 재산보다 재산·채무 전체 확인을 먼저 가르칩니다.
- 개별 가족갈등과 법률결론은 전문상담으로 연결합니다.

필수개념 지도표

개인재산과 공동재산

누가 소유하고 누가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를 구분한 재산입니다.

- 생활 예: 공동생활비 계좌와 개인저축 계좌의 사용규칙을 따로 정합니다.
- 반대 예: 가족이면 모든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가족관계와 법적 소유·계약 권한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 이해확인: 배우자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동의와 법적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본인을 대신해 정해진 범위의 일을 할 권한입니다.

- 생활 예: 위임장에서 금융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 반대 예: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연결: 대리는 범위·기간·본인의 의사와 기관별 확인절차가 중요합니다.
- 이해확인: 대리권이 있으면 모든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정해진 범위와 본인을 위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후견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의 권리와 생활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생활 예: 법원이 정한 후견 범위에 따라 재산관리를 지원합니다.
- 반대 예: 나이가 많으면 가족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후견은 본인의 의사와 필요를 존중하며 법적 절차로 권한을 정합니다.
- 이해확인: 인지가 떨어지면 가족이 자동으로 모든 권한을 갖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적법한 대리·후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법에 따라 이어지는 일입니다.

- 생활 예: 예금뿐 아니라 대출·보증 등 채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 반대 예: 받을 재산만 선택하고 채무는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상속은 재산·채무·상속인·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해확인: 상속은 재산만 받는 절차인가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채무도 포함될 수 있어 전체 내역과 선택기한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유산

사망 뒤 남는 계정·구독·전자기록·디지털 자산과 처리 권한입니다.

- 생활 예: 계정 목록과 문의처를 남기되 비밀번호는 별도 보안수단으로 관리합니다.
- 반대 예: 비밀번호 목록을 가족 단체방에 올리는 것입니다.
- 연결: 디지털 유산은 서비스 약관·상속권·개인정보·접근보안을 함께 봅니다.
- 이해확인: 계정 목록을 남기려면 비밀번호도 공개해야 하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목록과 접근절차를 남기고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분리합니다.

기초개념 설명 수업안

각 단원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원리 설명-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교정-확인문제의 순서로 지도합니다.

1. 가족재산은 재산과 채무의 묶음

도입 질문: 명의만 보면 가족의 금융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가족의 금융상태에는 예금·부동산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보증·세금·소송상 의무도 포함됩니다. 명의와 실제 부담자가 다를 수 있어 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알고 있다는 기억보다 계좌·계약·등기·채무와 담당기관을 목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판단 순서 1: 재산·채무·보증을 따로 목록화합니다.
- 판단 순서 2: 명의자·계약자·수익자와 관리권한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원본 문서 위치와 정기 점검자를 정합니다.
- 시범 사례: 부모 명의 집만 확인하고 부모가 보증한 사업채무를 놓치면 상속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가족이 실제로 사용한 돈이니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 확인 질문: 통장 잔액만 알면 가족재산 목록이 완성될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채무·보증·세금·보험·부동산과 디지털 자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속의 세 가지 기본 선택

도입 질문: 상속재산에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단순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원칙적으로 함께 승계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이라는 기간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법원과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임을 안 날짜를 기록합니다.
- 판단 순서 2: 재산·채무·보증·세금을 조회합니다.
- 판단 순서 3: 선택의 효과와 법원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시범 사례: 고인의 예금을 생활비로 먼저 사용하면 상속 승인과 관련된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존과 상담이 우선입니다.
- 바로잡을 오해: 빚이 많아 보이면 가족끼리 포기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확인 질문: 상속포기는 가족 합의서만 쓰면 되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법정 기간과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위임·대리·후견

도입 질문: 가족이면 대신 계약할 수 있을까요?

위임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일을 맡기는 것이고, 대리인은 정해진 범위에서 행동합니다. 가족관계만으로 모든 금융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성년후견 등 법적 제도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최소한의 권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본인이 원하는 도움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2: 위임장·후견 결정 등 권한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사용내역과 의사결정을 기록하고 정기 점검합니다.
- 시범 사례: 부모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부모 계좌를 관리하더라도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보다 적법한 위임과 금융회사 절차를 확인합니다.
- 바로잡을 오해: 자녀가 부모를 위해 쓰는 돈이면 기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가족갈등과 오용 위험을 키웁니다.
- 확인 질문: 부모가 고령이면 자녀가 자동으로 계좌를 관리할 수 있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적법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디지털 유산과 사후 기록

도입 질문: 온라인 계정도 상속 준비가 필요할까요?

디지털 유산에는 온라인 금융계정, 가상자산, 유료서비스, 사진·문서와 접근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와 개인정보, 계약 종료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그대로 적어 두는 것보다 계정 목록, 보관 위치, 연락기관, 본인의 처리 의사를 안전하게 남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판단 순서 1: 중요 계정과 유료계약 목록을 만듭니다.
- 판단 순서 2: 자산·개인기록·폐기대상을 구분합니다.
- 판단 순서 3: 접근 권한과 사후 처리 방법을 공식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 시범 사례: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거래소 이름과 계정 존재, 지갑 보관 방식은 남기되 비밀키 노출 위험을 따로 관리합니다.
- 바로잡을 오해: 가족에게 모든 비밀번호를 메시지로 보내 두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정보유출 위험이 큼니다.
- 확인 질문: 디지털 계정은 실물이 없으니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자산·요금·개인정보와 접근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시범풀이 지도

부모 계좌를 대신 관리하려는 가족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자 자녀가 비밀번호를 받아 모든 금융업무를 처리하려 합니다.

- 결정: 필요한 업무와 부모의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 정보: 위임·대리·후견 중 적합한 절차와 기관 요구서류를 찾습니다.
- 위험: 무권한 거래와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행동: 최소 범위의 적법한 권한을 마련합니다.
- 기록: 사용내역과 증빙을 투명하게 보관합니다.

60분 핵심 수업에서도 '왜 배우는가·필수개념·개념 작동 과정·시범풀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사례 수를 줄이되 기초학습은 줄이지 않습니다.

보강 주제 지도안

기존 기초개념을 최근 생활 장면에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연대보증·가족 간 돈거래도 계약입니다

가족 부탁이라도 보증인은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큰 책임을 질 수 있고, 돈거래는 상속·세금·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것: 도장을 잠깐 빌려주거나 이름만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채권자·채무자·보증 범위·기간·최대 책임·해지 가능성·담보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서명 전에 독립된 법률상담을 받고, 가족 간 거래도 금액·상환일·이자·증빙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공식 근거: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 검토 2026-08-24

<https://www.klac.or.kr/>

60분 핵심 수업안

시간	활동	교수자 확인
0~5분	생활장면·학습 이유	이 학습이 지키는 생활영역 확인
5~15분	용어와 개념카드	뜻·예·반대 예·개념 관계 확인
15~30분	개념 작동 과정	원리·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확인
30~38분	시범풀이	교수자가 판단과정을 소리 내어 보여 줌
38~50분	사례 1개	즉시·나중 결과와 추가정보 비교
50~60분	행동·권리·다음 학습	기초 확인문제와 실행 날짜 확인

90분 수업안

시간	활동	산출물
0~10분	진단·학습계약	개인정보·발언 선택권 확인
10~25분	Part 2·3 구조읽기	용어 8개 생활 예시
25~45분	Part 4 비교도구	비교표 1장
45~70분	사례 5개 모둠실습	선택·근거·추가정보·다음 행동
70~82분	권리·지원 역할연습	도움 요청 문장
82~90분	사후평가·30일 약속	개인 행동계획

다섯 사례 운영 질문

1. 배우자의 숨은 빚

생활비 계좌가 압류되고서야 채무를 알았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가족관계와 법적 책임을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추가정보: 보증·공동명의·공동차입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공동비와 개인채무를 분리해 사실·계약·책임 범위를 확인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모든 빚을 바로 대신 갚는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계좌를 숨긴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2. 부모의 보증 부탁

서류는 형식이라며 자녀에게 보증을 요구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보증은 최악의 경우 전액 채무로 본다.
- 추가정보: EDU-04의 보증 점검표를 함께 사용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최고액·기간·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거절 또는 상담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효도라 생각해 서명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인감만 보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3. 사망 뒤 채무

예금만 찾다가 뒤늦게 빚을 발견했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처분 전에 전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다.
- 추가정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간과 행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상속재산·채무를 공식 조회하고 법정 절차·기간을 즉시 상담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예금부터 인출해 쓴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가족끼리 구두로 나눈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4. 반복 송금

인지능력이 저하된 부모가 같은 사람에게 계속 송금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함께 지킨다.
- 추가정보: 권한 없이 재산을 통제하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안전을 확인하고 거래기록·의사상태를 보존해 후견·지급관리 상담을 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휴대전화를 빼앗는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자녀 계좌로 전액 옮긴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5. 남은 계정과 구독

사망자 명의의 구독과 디지털 계정이 계속 결제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권한과 증빙을 갖춘 공식 절차를 따른다.
- 추가정보: 계정별 약관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공식 사망자 처리 절차와 상속 권한을 확인해 목록대로 정리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비밀번호를 추측해 로그인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카드만 폐기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오개념 바로잡기

오개념: 배우자의 빚은 모두 함께 갚아야 한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상속은 재산만 받는 절차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가족이면 계좌와 비밀번호를 자유롭게 써도 된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평가 해설

1. 가족금융·상속·후견·디지털 유산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정답 A. 공동비의 금액·납부일·담당·열람권을 합의한다.

- A.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공동비의 금액·납부일·담당·열람권을 합의한다.
 B. 이 선택은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공동비의 금액·납부일·담당·열람권을 합의한다.
 C. 이 선택은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공동비의 금액·납부일·담당·열람권을 합의한다.
 D. 이 선택은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공동비의 금액·납부일·담당·열람권을 합의한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정답 B.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

- A. 이 선택은 '현재 보이는 금액만'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B.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C. 이 선택은 '광고 순위와 후기 수'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D. 이 선택은 '친구가 선택한 상품'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정답 C.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 A. 이 선택은 '기억해 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B. 이 선택은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 C.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D. 이 선택은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답 C.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 A. 이 선택은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B. 이 선택은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C.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D. 이 선택은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정답 C.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

- A. 이 선택은 '추가 차입·송금으로 시간을 번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B. 이 선택은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C.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D. 이 선택은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6. 사례 '배우자의 숨은 빚'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공동비와 개인채무를 분리해 사실·계약·책임 범위를 확인한다.

- A. 가족관계와 법적 책임을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보증·공동명의·공동차입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
 B. 이 선택은 '모든 빚을 바로 대신 갚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가족관계와 법적 책임을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보증·공동명의·공동차입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
 C. 이 선택은 '계좌를 숨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가족관계와 법적 책임을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보증·공동명의·공동차입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가족관계와 법적 책임을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보증·공동명의·공동차입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

7. 사례 '부모의 보증 부탁'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최고액·기간·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거절 또는 상담한다.

- A. 보증은 최악의 경우 전액 채무로 본다. EDU-04의 보증 점검표를 함께 사용한다.
 B. 이 선택은 '효도라 생각해 서명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보증은 최악의 경우 전액 채무로 본다. EDU-04의 보증 점검표를 함께 사용한다.

- C. 이 선택은 '인감만 보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보증은 최악의 경우 전액 채무로 본다. EDU-04의 보증 점검표를 함께 사용한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보증은 최악의 경우 전액 채무로 본다. EDU-04의 보증 점검표를 함께 사용한다.

8. 사례 '사망 뒤 채무'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상속재산·채무를 공식 조회하고 법정 절차·기간을 즉시 상담한다.

- A. 처분 전에 전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다.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간과 행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 B. 이 선택은 '예금부터 인출해 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처분 전에 전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다.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간과 행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 C. 이 선택은 '가족끼리 구두로 나눈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처분 전에 전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다.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간과 행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처분 전에 전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다.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간과 행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9. 사례 '반복 송금'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안전을 확인하고 거래기록·의사상태를 보존해 후견·지급관리 상담을 한다.

- A.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함께 지킨다. 권한 없이 재산을 통제하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B. 이 선택은 '휴대전화를 빼앗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함께 지킨다. 권한 없이 재산을 통제하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C. 이 선택은 '자녀 계좌로 전액 옮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함께 지킨다. 권한 없이 재산을 통제하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함께 지킨다. 권한 없이 재산을 통제하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다.

10. 사례 '남은 계정과 구독'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공식 사망자 처리 절차와 상속 권한을 확인해 목록대로 정리한다.

- A. 권한과 증빙을 갖춘 공식 절차를 따른다. 계정별 약관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
- B. 이 선택은 '비밀번호를 추측해 로그인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권한과 증빙을 갖춘 공식 절차를 따른다. 계정별 약관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
- C. 이 선택은 '카드만 폐기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권한과 증빙을 갖춘 공식 절차를 따른다. 계정별 약관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권한과 증빙을 갖춘 공식 절차를 따른다. 계정별 약관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민감한 상황 대응

- 피해·연체·가족갈등 경험을 전체 앞에서 말하게 하지 않는다.

- 즉시 위험·범죄·자해 위험이 있으면 교육보다 안전과 기관 연계를 우선한다.
- 교수자가 법률·세금·투자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적용 시점의 공식 상담을 연결한다.
- 개인 활동지는 수거를 최소화하고 보관·폐기 기준을 사전에 알린다.

수준별·상황별 조정

학습 상황	조정 방법	지켜야 할 기준
청소년·초보	용어를 생활 장면과 그림으로 먼저 설명	계약 책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음
저문해·이주민	한 문장 한 정보, 숫자·날짜를 크게 표시	통역·쉬운 자료 제공 여부 확인
고령·시각 불편	큰 글씨와 소리 내어 읽기, 충분한 응답시간	대신 결정하지 않고 본인 의사 확인
피해 경험자	가상사례와 비공개 선택지 사용	경험 공개·책임 추궁 금지

수행평가 루브릭

기준	기초	도달	확장
구조 이해	용어를 찾는다	돈·책임·기한을 설명한다	예외와 변동 가능성을 말한다
비교 판단	한 요소를 본다	총비용·위험·권리를 비교한다	최악 시나리오와 중단 기준을 정한다
행동·기록	행동을 고른다	날짜·근거·증거를 적는다	공식 기관에 묻는 문장을 작성한다
권리·지원	기관을 안다	알맞은 기관을 고른다	다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다

자료 업데이트 점검

내용 기준일 2026-08-24, 다음 정기점검 2026-11-20. 숫자·기한·기관명·URL·법령 개정 여부를 수업 전에 다시 확인한다.

점검 대상	질문	기록
법·제도	시행일·대상·예외가 바뀌었는가	확인 URL·날짜
숫자·기한	한도·세율·신청기한이 유효한가	공식 문서 제목
기관·서비스	명칭·전화·주소·절차가 유효한가	접속·전화 결과

점검 대상	질문	기록
사례	과장·낙인·단정이 없는가	수정 사유

교수자료 A · 개념·경계 지도

이 모듈이 담당하는 역량과 다른 모듈로 넘겨야 할 내용을 구분한다.

영역	이 모듈에서 다룰 것	수업에서 단정하지 않을 것
이해	공동생활비와 개인재산의 경계·동의 규칙을 만든다.	개별 계약의 최종 법률효과
비교	보증·증여·상속이 서로 다른 법률·세금 문제임을 구분한다.	미래 가격·금리·수익의 예측
행동	대리·후견·의사결정 지원에서 권한과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모든 학습자에게 같은 정답 강요
권리	계좌·보험·채무·구독·디지털자산 목록과 접근 원칙을 준비한다.	기관의 최종 결정·판결 결과

교차 모듈

- EDU-10 연금·은퇴
- EDU-15 민사구제

교수자료 B · 수업 전 최종 검증표

수업 당일에도 공식 근거와 접근성을 다시 확인한다.

검증 항목	완료	메모
공식 URL 접속과 적용 기준일	☐	
한도·기한·기관명 최신성	☐	
본문·화면 글자 크기와 대비	☐	
활동지 개인정보 최소화	☐	
민감 경험 비공개 선택권	☐	
상담·신고 연결 방법	☐	
60분·90분 시간 배분	☐	
사전·사후평가 동일 역량	☐	

공식 확인처

- 금융감독원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https://fine.fss.or.kr/>
- 대한민국 법원 · 상속·후견 절차 · <https://www.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 <https://www.klac.or.kr/>
- 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https://www.gov.kr/>